

진실의 연대를 구하며

사회복지법인 청구사 사쿠라모토보육원

1. 새로운 태동

가와사키 남부, 무수한 굴뚝이 숲처럼 늘어서 있고, 다양한 노동자들이 삶을 꾸려가는 임항지대의 한 모퉁이에 하나의 새로운 사회복지법인이 탄생했다.

1973년 10월 4일의 일이다.

그 이름은 청구사(青丘社)라 한다.

‘청구’란 한국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한국어로는 ‘청구’라고 읽는다.

그 길은 참으로 길었다.

법인 인가를 받기까지의 매일매일은 말 그대로 고투의 연속이었다.

어느 시대이든 공공사업은 인간 안에 깃든 선의를 출발점으로 삼는 만큼, 그 점을 명심해 주기 바라는 것은, 현청에서 인가서를 건네받을 때, 현 민생부장으로부터 들은 훈시였다.

선의는 결코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자발적이기 때문에 선의가 된다.

그러나 그렇기에 선의를 모아 어떤 사업을 이루어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그랬다.

야심이 없는 사람들의 선의를 하나의 큰 힘으로 모아내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가.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과 동시에, 아니 그것을 능가할 만큼 우리에게 무겁게 닥쳐온 한 가지 현실이 있었다.

그것은 이 법인이 재일외국인, 즉 이 나라에서 일정한 체류 자격을 얻어 거주하는 우리 한국인들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일본 사회에서 한국인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를 구성하여 공익사업을 운영한다. 이는 매우 드문 케이스일 것이다. 아니, 거의 유례가 없다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만큼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양한 벽에 직면해야 했다.

수많은 장애에 부딪쳤다.

많은 제약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다.

일본 사회의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를, 우리는 빠속 깊이 절절하게 느끼게 되었다.

싸움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일본인 형제자매들이 내밀어 준 따뜻한 협력과 뜨거운 우정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다.

아마 그들의 지지와 격려가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감사의 마음은 해외의 여러 기독교회, 특히 캐나다 장로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마음속에 깃든 참된 선의를 느낄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을 통해서였다.

지금, **청구사(青丘社)**는 미래를 향해 날아오르려 하고 있다.

‘청구’—얼마나 멋진 이름인가!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은 걸음을 걸어가고자 한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앞에는 두꺼운 벽이 가로놓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꺼이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선의를 알게 된 이상 우리에게 절망은 있을 수 없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다.

끌이 없을 만큼 많은 꿈이 있다.

노동자의 도시, 이 바다를 마주한 서민의 마을에서 우리는 살아갈 것이다.

도서실을 만들어 가까이 사는 아이들에게 제공하자.

법률 상담과 의료 상담도 시작하자.

청년 강좌와 부인 학급을 개설하여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행동하자.

노동 강좌도 열고 싶다.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 보육원도 내실화 하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하고 싶다.

민족의 역사와 문화, 조국의 언어를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이 참된 민족의 일원으로서, 강인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걷기를 바란다.

이 이국 땅에서 한국인이 한국인으로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동시에 일본인을 참된 일본인으로서 하는 길이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민족적인 것을 바로 세움으로써 참된 인터내셔널한 관계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긴 사회복지 사업의 전통에 스스로를 연결시키면서,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자리와 그 관계성의 한가운데에서 굳건히 서서 걸어가자.

이것이 우리의 자세이며 우리의 결단이다.

새로운 태동이 시작되었다. 그것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함께 키워 나가자.

2. 신앙공동체-가와사키교회-

사회복지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선의에 기초한 공동체의 일이다.

말하자면 ‘선의의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것과 동등한 비중을 두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공동체, 즉 ‘신앙’ 공동체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선의를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무리, 그 공동체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그것이 바로 ‘재일대한기독교 가와사키교회’이다.

현재 일본에는 약 63 만 명에 가까운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태평양전쟁 종결 당시에는 그 수가 240 만 명을 넘어섰다. 지금의 60 여만 명은 그들의 친족이자 자손들이다.

일본의 패전은 한국에게 있어 독립과 해방의 순간이었지만, 한국인 대부분은 조국으로 돌아갔고, 현재 오른쪽으로 올린 수의 사람들이 오늘까지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왜 일본에 거주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전쟁 전 일본의 해외정책, 특히 대아시아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요컨대, 일본의 36 년에 결친 조선 식민지 지배가 낳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 국내의 기업·철도 부설·탄광·댐 건설 등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강제 동원(징용) 또는 전투원 보충(징병)으로 일본으로 끌려온 한국인들이 많았으며,

전쟁후에도 그들 대부분이 그대로 일본에 남아 살게 되었다.

가와사키에 거주하는 9 천 명에 가까운 한국인들은 거의 모두 이 같은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대다수가 임항지대 즉 철강·조선 등 대기업이 모여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은, 이들의 생활사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가와사키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대부분 한국인으로, 앞서 언급한 그 역사를 온몸으로 겪어낸 사람들, 혹은 그 자손들이다.

교회가 자리한 지역에는, 예를 들어 1,000 명 가까운 아동이 다니는 시립 초등학교에 약 100 명의 한국인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는 통계가 보여주듯, 아주 많은 한국인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그 수는 약 4,000 명이라고 한다.

또한 한국계, 북조선계의 민족단체나 교육기관도 이 지역에 있어, 각각 독자적인 민족운동을 펼치고 있다. 조금 더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면, 가와사키 교회 주변에는 공해로 인한 인정을 받은 환자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그 발생률은 가와사키 시내에서도 가장 높다.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지역이다. 코를 찌르는 아황산 가스가 이 지역 전체에 가득 차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무한에 가까운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독소를 많이 포함한 가스류가 축적되어, 만일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하면 가와사키역 근처 지역은 거의 살아남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이는 소방서의 말이다.

기업의 횡포에 매일 분노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민중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공해가 아니라 “사(私)기업해(害)”라고 불러야 한다고 들 말한다.

한국인을 둘러싼 지역적 상황을, 전쟁 이전 — 즉 “과거”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고, 사기업해(공해)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상황을 전쟁 이후 — 즉 “현재”의 것으로 생각한다면, 가와사키 교회는 지금까지의 25 년간의 걸음을 늘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신음하듯 걸어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와사키 교회는 5~6 년 전부터, 주일과 수요일 밤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예배당을 개방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육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그 동기는 단순했다.

즉, 주변 지역에 밀집해 생활하는 노동자들, 특히 맞벌이 부부들에게 조금이라도 편의를 제공하고자 생각하여, 세 명의 보모를 중심으로 약 30 명의 아이들을 맡게 된 것이다.

그러나 보육소 개설은 결코 간단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물리적으로는 예배당 제공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교인들의 심리적·신앙적 태도에서는 ‘성소(한때 종교 민족 이스라엘은 예배당을 그렇게 불렀다)’를 세속적 일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저항이 있었다. 심한 논쟁도 있었다. 포기하려 했던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교인들은 다음과 같은 신앙적 이해에 서서, 예배당을 기쁘게 보육소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게 되었다.

즉, 신앙 안에서 산다는 것은 자기만의 충족된 세계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 이웃과 깊이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해였다. 더 나아가 이웃, 즉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짐과 과제를, 그들의 고락을 함께 나누며 짊어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이웃이란 중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각자가 속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 다시 말해 일본인은 일본인답게, 한국인은 한국인답게 살아가는 그 의미에서의 이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육소는 개설되었다.

보육 커리큘럼에서도 종래의 여섯 가지 영역 외에 새롭게 ‘이웃’이라는 영역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원아들은 일본 아이도 한국 아이도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함께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이러한 보육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교육 실천이, 그 뒤에 가와사키 교회라는 신앙에 기반한 공동체를 지원단체로 두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감사한 마음으로 되새기고 있다.

3. 무인가(無認可)에서 공인(公認) 보육으로

세 명의 보모와 서른여 명이 넘는 아이들, 그리고 좁고 답답한 목조 단층 보육실 — 무허가 보육소(훗날 ‘사쿠라모토 보육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됨) 시절의 일반적인 이미지였다.

그 보육은 5년간 이어졌고, 350 세대 이상의 가정과 접촉하며, 매일의 보육뿐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부모회’(연 3회 이상 결석하면 퇴원시키는 엄격한 조건까지 붙여!)를 통해, 원의 교육 방침과 내용을 함께 논의해 왔다.

보육은 단순히 맞벌이 부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초기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넘어설 수밖에 없었고, 가정과 보육원이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유아기 교육 실천이라는 이해가 짹트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한국인 원아들에게는 반드시 본명을 사용하게 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방식 또한 일본식 한자 독음이 아니라 한국 고유의 발음으로 부르게 하였다.

이름은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본명을 사용하고,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일본식 이름 사용을 당연하게 여겼던(이를 동화(同化) 현상이라 한다) 부모 스스로가 변화하여, 자신의 민족적·인간적 주체성을 회복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또 자신의 아이가 가장 가까운 나라의 언어를 외국어로서 처음 배우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열정적으로 이야기해 준 일본인 어머니도 있었다.

확실히 멀리 있는 유럽이나 미국의 언어보다 먼저 한국어와 중국어를 익히는 것은 일본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지난해 8월, 우리 보육원 관계자들은 교회의 청년들과 함께 2박 3일의 연수회를 열었다.

아이를 데리고 참가한 보모도 있었다.

지난해(1973년)는 보육소를 개설한 지 년도가 훌러, 보모의 수도 당시 5명 정도는 확보되었으며, 원아 수도 70명에 달했다. 한국인 보모를 중심으로, 더 나아가 일본인 직원까지 포함한 큰 규모의 조직으로 성장해 가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리고 국가에 있어 최대의 문제는, 그동안의 무허가 형태의 보육원을 공인된 시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환 조치는 법적으로 전년도 가을에 결정되었다) 교육 방침·내용, 제도적·재정적 보장 등에 대해, 원측—엄밀히 말하면 보모들 자신—이 어떤 교육적 태도를 확립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그에 앞서, 법인 설립 위원회나 교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공인 보육의 찬반양론(예를 들어 재정적 보장이 이루어지는 장점과, 행정 레벨에서의 규제·교육 내용에 대한 개입과 같은 단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 논쟁이 있었고, 연수회에서도 그 문제는 줄곧 뜨겁게 논의되었다.

여러 각도에서 검토한 뒤, 우리는 ‘연수회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어떤 의미에서 사쿠라모토 보육원의 5년을 총정리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자, 사쿠라모토 지역에 보육원을 개원한지도 5년째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다양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재일대한기독교회 가와사키교회의 사쿠라모토 보육원으로서, 그리스도교 정신에 기초하여 각각의 아이들과 마주해 왔습니다.

참된 의미에서 아이들의 인격을 서로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지역 사회에 봉사한다는 의미에서의 보육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도 어떻게든 계속해 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보모들의 숨김없는 진심 어린 심정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

시행착오의 반복으로 이어진 5년간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이 말에 집약될 것이다.

이어, 이 걸음의 모든 과정이 원의 학부모, 지역 주민, 교회 관계자들의 변함없는 지원으로 오늘에 이르렀음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그 시선을 지역사회로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공해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육원 안에도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짊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예를 들면 소아 천식이 있는 아이, 장애가 있는 아이,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아이, 그리고 한국인을 부모로 둔 아이들의 살아가는 방식, 양육 방식에 대한 고민 등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쿠라모토 보육원은 가벼운 신체 장애아를 의도적으로 받아드려, 그 아이들이 비장애 아이들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숨겨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비장애 아이들이 인간으로서의 다정함과 배려 같은 정서를 풍부하게 키울 수 있도록 교육적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훌륭한 교육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맺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순수한 아이들의 보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간 형성에 있어, 우리 보모들의 마음가짐은 물론, 학부모 여러분과 함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진심으로 아이들의 장래를 걱정하며 접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과 책임의 무거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권은 교육을 받는 측에 있다.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이다.

그러나 그 권리는 늘 폭압적인 지배자와 국가 권력에 의해 빼앗겨 왔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왜곡된 현실을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

보모들은 지금 그 사실에 뚜렷이 눈을 뜨고 있다. 그 눈뜸이야말로, 지역사회 안으로 깊이 들어가 그 문제의 근원을 날카롭고 정확하게 지적하며, 해결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

청구사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지금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하더라도, 자기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찾을 수 있겠는가?」 — 신약성서에서

한 인간의 생명은 지구보다도 더 무겁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잃게 하고, 소홀히 만드는 두터운 벽과 장애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가와사키의 여전히 불길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남부의 한 구석에서, 우리는 지금 일어서려 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선의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수레의 두 바퀴로, 쌍수의 무기로, 우리는 이제 걸음을

내딛으려 하고 있다. 진정한 연대를 구하며……

(1974년 3월 1일)

(주) 문책은 모두 사쿠라모토(桜本) 보육원 원장 이인하(李仁夏)와 사회복지법인 청구사(青丘社) 이사 코스기 카츠지(小杉赳次)가 적은 것입니다

※ 40년 이상 전, 청구사(青丘社)를 설립할 당시 작성된 글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경도의 신체장애 아동을 의도적으로~” 등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는 표현도 있지만, 당시의 마음을 느끼며, 계승해야 할 에센스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青丘)는 전통적으로 '동방의 나라'라는 뜻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우리나라)을 지칭해 온 별칭입니다. '청구'는 동방을 가리키는 색인 청(青)을 사용하여 '동방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하늘에 있는 '청구'라는 별이 동쪽에 뜨는 별이라 하여 '동방세계'로 해석되기도 한다

번역 사회복지법인 청구사 히토라인 데이서비스 관리자 김성미(2025년 12월 14일)